

기초조사 : 기후위기 해결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1.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 기후위기 유발의 주요 원인인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탄소중립 전력 대안의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SMR(소형모듈원자로) 등으로 전환한다.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발전(37.3%), 철강(19.2%), 석유화학(9.5%) 등
- 석탄화력 발전 설비를 폐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만든다

2. 강력한 탄소 저감 정책 실시

-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업이 먼저 나서서 친환경 경영을 해야 한다.
-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 대기 중 탄소 포집, 흡수 활용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널리 보급해야 한다.
-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비행기에 대해 운항 규제를 해야한다.
- 인간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

- 정부가 강력한 탄소 저감정책을 실행하고, 기업이 환경보호를 우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한다.
- 나부터 제로 웨이스트 실천 운동 등을 해야 한다. 탄소배출 제로 생활방식으로 전환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 "각국 정부와 기업을 강제하는 기후 대응 시민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 (정치와 이윤 추구에서 분리된 시민 의회)"
- 시민들이 직접 나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에너지 협동조합)가 되어야 한다.
- 시민들이 탄소배출 제로 생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4. 자연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 갯벌, 습지 등 생태계 복원

- 숲, 토지, 바다 등 자연의 회복력, 재생능력(resilience)에 의존하고,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을 통해 기후변화 및 인간에 의한 도시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산림, 갯벌, 습지 등 생태계를 복원, 발전시켜 자연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5. 그 외

1.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 기후위기 유발의 주요 원인인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탄소중립 전력 대안의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SMR(소형모듈원자로) 등으로 전환한다.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발전(37.3%), 철강(19.2%), 석유화학(9.5%) 등
- 석탄화력 발전 설비를 폐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만든다

<공정호>한수원 최대 주주 고덕청정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착공 / 연합뉴스 / 2021-06-29 15:40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9132400003?input=1195m>

<이종원>소형 모듈 원자로, 탄소중립 전력 대안으로 주목받나/ 경기신문 / 2021.06.05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49725>

탄소중립 전력 대안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주목받고 있다. 500MW(메가와트)급 이하로 설계돼 원자로 냉각재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적어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 안전하다는 특징을 가졌다. 특히 발전용수나 건설 비용·기간 등이 대형 원전보다 적어 내륙에서의 건설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한국은 2012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SMR 모델 스마트(SMART)를 개발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2기 이상 건설하는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공정호>[다가온 수소사회]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수소사회로 가는 세계 /현대모터홈피 / 2020-08-28

<https://tech.hyundaimotorgroup.com/kr/article/hydrogen-society-the-future-of-hydrogen-energy-a-paradigm-shift/>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해마다 지구의 평균온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탄소에너지를 대체할 친환경에너지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다. 태양광, 풍력 등 자연의 힘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에 화학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다.

그중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에너지다. 사용 과정에서 순수한 물만 배출하고, 무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종원>철강산업 탄소 감축, 정부가 전력 문제 풀어줘야 가능 / 중앙일보 / 2021.05.22

<https://news. Joins.com/article/24063842>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발전 37.3%, 철강 19.2%, 석유화학 9.5%, 시멘트 6.8%, 정유 5.3%, 반도체 2.9%

수소환원제철 공법은 환원제로 코크스나 천연가스가 아닌 수소를 사용한다.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철강산업 탈 탄소화의 궁극적 목표로 꼽힌다. 이 기술만 확보한다면 철강산업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철강산업에서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도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내용 요약)

(이춘애) LG전자, 2050년까지 전 사업장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연합뉴스/2021.7.18

2030년까지 글로벌 사업장에서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17년 대비 50%로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외부에서 탄소감축활동을 펼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표명

<장은영> 탈석탄 및 화석연료 금융/기후솔루션/2021.07.21.

<http://www.forourclimate.org/sub/work01.html>

1. 탈석탄 및 화석연료 금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값싸고 효과적인 방법은 에너지 생산 부문에서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해외 석탄 투자는 현지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 석탄화력발전설비를 조기에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대신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2. 재생에너지 및 전력시장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전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비중은 아직 4% 미만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온실가스 감축 정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은 국가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값싸고 효과적인 방법은 에너지 생산 부문에서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설비를 조기에 폐쇄하고,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2. 강력한 탄소 저감 정책 실시

-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업이 먼저 나서서 친환경 경영을 해야 한다.
-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 대기 중 탄소 포집, 흡수 활용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널리 보급해야 한다.
-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비행기에 대해 운항 규제를 해야한다.
- 인간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구선희>공기속 CO2로 다이아몬드 만들면 기후위기 탈출할 수 있을까/ 중앙일보/ 2021.05.08

<https://news.ajoins.com/article/24052774>

탄소 중립이란 신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고 그래도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온실가스 양 만큼을 산림 등으로 흡수해서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산림을 통한 흡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쓸모없이 버려지는 이산화탄소를 화학적으로 전환해 메탄올이나 유기 화합물, 플라스틱 등 고부가가치 생성물이나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 “탄소 활용 기술”이라고 한다.

♣탄소활용기술 예시♣

- 이산화탄소 흡수해 탄화규소 생산(담뱃잎재배→수확→건조분쇄→분말→광물화→탄화규소)
[탄화규소는 극한의 강도와 열 안정성, 광학투명성 등으로 우주개발,건설,전자 등에 널리 쓰임]

2. 공기중 이산화탄소를 모아 인조 다이아몬드 만들기(이산화탄소를 고온,고압 조건에서 화학반응시켜 다이아몬드 생산.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100%사용 가능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는 사용하지 않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만 흡수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

<곽호경> [프리미엄 리포트] 자동차 기술로 기후위기 극복한다 / 2021.05.22 09:00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6695>

독일의 공학자 카를 프리드리히 벤츠는 1886년 1월 29일 베를린 임페리얼 특허사무소에 ‘페이턴트 모터바겐’의 특허를 등록했다. 3륜 간이마차에 1기통 954cc 가솔린엔진을 얹은 세계 최초의 자동차였다. 최고출력 0.75마력, 최고속도 시속 16km로 말보다 힘이 약하고 속도도 느렸지만 ‘말없이 달리는 마차를 만들겠다’는 인류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자동차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힌다. 인류는 자동차의 발명으로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졌다. 단순한 ‘이동’에 허비하던 에너지를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분야에 쓸 수 있게 됐고, 이는 곧 혁신의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자동차가 인류에게 긍정적 영향만 끼친 것은 아니다. 지난 135년간 자동차가 내뿜은 온실가스는 ‘기후위기 가속화’라는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와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됐다.

<장은영> 비행기 여행 다시 늘어난다는데…각국 운항규제 기후변화 해결에 별 효과 없어 / 동아사이언스 / 2021.06.25.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7496>

비행기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 보통 사람 1명이 유럽과 뉴욕을 비행기로 왕복하게 되면 2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사람 1명이 1년동안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난방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비슷한 양이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달 27일 향후 5년 중 1년은 산업화 이전시기보다 1.5도 올라갈 가능성이 약 40%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선희> 줄어든 노동시간, 일자리 나눔에서 기후위기 해결책 되나/한겨레신문/2021.07.05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2118.html

주52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12시간)를 더한 시간이다. 이 제도는 점차 확대되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생태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근본적으로 브레이크 없는 생산활동이라 보고, 노동시간을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든 것이라고 여긴다.

<안은실> 환경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시대가 열린다. / 환경청 공식 블로그 푸른하늘 기자단/2020.11.06

<https://url.kr/veyqgw>

우리의 삶에 필수인 여러 교통수단은 온실가스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우리 하늘에 피해를 주고있다. 이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 실현해야 한다.

<안은실>우리나라의 산업공정 제조업에도 탄소 줄이기인 ‘ESG’가 유통업계 경영 기조로 자리잡고 있다. /스포츠 한국>경제:경제산업부 임현지 기자 / 2021.02.19

<https://url.kr/bhkzye>

상품 제조 단계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친환경 제조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이른바 ‘가치소비’가 기업 입장에서조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ESG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분위기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

- 정부가 강력한 탄소 저감정책을 실행하고, 기업이 환경보호를 우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한다.
- 나부터 제로 웨이스트 실천 운동 등을 해야 한다. 탄소배출 제로 생활방식으로 전환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 "각국 정부와 기업을 강제하는 기후 대응 시민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 (정치와 이윤 추구에서 분리된 시민 의회)"
- 시민들이 직접 나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에너지 협동조합)가 되어야 한다.
- 시민들이 탄소배출 제로 생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인옥> 기후비상 ... 텀블러 사용식 개인 실천으로 한계 / KBS NEWS / 2021.3.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32946>

화석연료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 대기 중에 짧게 체류하는 단기 오염물질(메탄, 수소불화탄소 등) 감축, 생태계 복원·보호, 식물성 식품 섭취, 탄소 없는 경제로 전환, 지구촌 인구 안정화등이 중요하지만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가 생존의 문제임을 점차 인식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생존과 적응법을 교육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선희>기후위기 대응, 시민이 주도해야 한다 / 한겨레 / 2021-05-02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3552.html

기업과 국가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역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협동조합이 에너지 전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계미란> [기후정의를 말한다] 오병호 "제로웨이스트 실천, 일회용품 '거절하기'부터"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 2021.06.09

http://www.cpbk.co.kr/CMS/news/view_body.php?cid=803732&path=202106

해결방법으로는 제로웨이스트가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일상에서 사용되는 자원과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사회운동입니다. 기본이 되는 실천은 바로 '거절하기'입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주는 일회용 수저, 카페에서 받는 빨대, 마트에서 쓰는 비닐봉지, 모바일로 저장 가능한 명함 등 무료로 나눠주는 물건들을 모두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춘애) 구리시, 민·관 협업 '그린뉴딜 실천' 시도 / 시민일보 / 2020.12.22

[구리시, 민·관협업 '그린뉴딜 실천' 시동 \(siminilbo.co.kr\)](http://siminilbo.co.kr)

구리시와 기관단체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자전거 타기 등의 실천으로 지역사회가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실천운동 협약식을 갖었다.

<이진경> 기후 비상...“텀블러 사용식 개인 실천으로 한계” / KBS뉴스 / 2021.03.0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32946>

기후 위기 해결책에서 국가간의 정책설립의 중요성과 더불어 개인의 실천이 중요해지는데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가 생존의 문제임을 점차 인식하고 시민들 상대로한 교육을 강화 필요성: '기후변화'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 등으로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생존과 적응법을 교육

<류지훈> 탄소 사용량을 감축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복도시세종/

https://www.sejong.go.kr/kor/sub04_040901.do

가정 내 탄소 배출원의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류지훈> 지구온난화 stop! 온실가스 줄이는 5가지 방법 / hmg 저널/ 2015-03-18

<https://news.hmgjournal.com/TALK/Story/Hyundai-stop-warming>

환경을 지키는 채식의 힘, 딱 먹을 만큼만 요리하기, 목욕법의 변화로 지구를 위하는 법, 환경을 지키는 텀블러 사용하기, 웜비즈 룩으로 체온 Up, 에너지 Down

<류지훈> 생태보전을 위한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8가지/ 국립생태원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nie_korea&logNo=220896516720

<한희영>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생태계 파괴를 막는 기후변화 해결방안 국립생태원 블로그 / 2021.06.03 / https://blog.naver.com/nie_korea/222382498252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 :자전거타기, 냉난방 줄이기, 무분별한 야생생물 포획과 살생 STOP! 무분별한 외래 생물 유입 STOP! 채소류 위주 섭취하기, 물 아껴쓰기, 종이와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재활용 생활화하기, 주변 자연을 깨끗이 하기, 각종 청구서는 종이가 아닌 온라인으로 받기

4. 자연치유할 수 있도록 산림, 갯벌, 습지 등 생태계 복원

- 숲, 토지, 바다 등 자연의 회복력, 재생능력(resilience)에 의존하고,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을 통해 기후변화 및 인간에 의한 도시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산림, 갯벌, 습지 등 생태계를 복원, 발전시켜 자연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강희정>벌채 등 산림 부문 '탄소중립 전략' 개선방안 만든다/매일경제/2021.07.08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8137900063>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임업인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총 19명이 참여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 방향을 모색

"최근 보도된 벌목 문제로 국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주요 당사자 집단 대표들이 마주 앉아 탄소중립이라는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것은 산림청과 특정 이해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국민 모두의 문제"라며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

<최정임>기후위기대응,탄소흡수원 갯벌의 중요성 / 경인일보 / 2021,7,19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10718010002990>

자연의 공팔'이라 불리는 갯벌은 오염물질 정화·자정능력 갖췄지만 대규모 매립·간척으로 30년간 서울의 면적보다 넓은 갯벌이 사라졌다. 인천공항,청라,송도,새만금 모두 갯벌이었다.

다행히도 최근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연안습지보호지역 확대와 갯벌생태계복원사업 확대(2019~2023)등을 추진하고 있어 사라지는 갯벌을 되살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이라도 하듯 최근 정부가 '한국의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에 코로나로 연기되었던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가 2021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개최되고 있다. 부디 최종 결과가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발표되길 바란다.

<최현> 기후위기 생존 대책? 이미 다 있다/ 프레시안 / 2020.01.0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72907#ODKU>

핵심은 숲, 토지 등 자연의 회복력, 재생능력에 백프로 의존해야 한다.

*온실가스배출 제로

- 1.햇빛발전, 풍력발전,지력등을 이용한 건물자체의 에너지효율 극대화
- 2.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하는 농축산업을 재생농업, 전통기후농법으로 전환

*기후위기는 식량위기이자 기후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린뉴딜

<최경심> 기후위기해법 생물의 다양성에서 찾는다 /의학신문/ 2021.06.14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704>

국립생물자원관, 18일 자연기반해법 주제 기후위기 해결방안 세미나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및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와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민기식 인하대 교수(한국동물분류학회장)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을 주제로 기후위기 해결방안을 소개한다.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이란 기후변화 및 인간에 의한 도시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자연 기반으로 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말한다.

그 외

<이문영> 코로나19 위기, 기후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 / 경기연구원 / 2020.5.12.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동력으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자원 동원의 가시적 효과(13.3%),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11.7%), 공공의료시스템과 같은 정부의 공공투자(11.0%)로 나타남.

그린뉴딜 추진 우선 분야로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탈탄소 사회 및 녹색경제를 위한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 강조함.

[《차호숙》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를 줄이는 방법/환경부공식블로그/2021.4.23](#)

우리나라 탄소중립 계획

2050년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

- 1)신재생에너지 활용
- 2)디지털기술을 연계한 에너지 효율 향상
- 3)탈 탄소 미래기술개발
- 4)자연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 5)재활용, 재사용 최대화

<이현숙> /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제시하는 기후 위기 해결 방안 / 루트에너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다 / 2020. 06. 04.

https://blog.naver.com/p2p_cleanenergy/221989653116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기후 위기가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식량, 물 및 전력 공급의 난, 홍수나 화재 등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극심하게 겪고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을 모두 해결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
2. 더러운 에너지를 중단한다.
3.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4. 화석 연료 회사들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박미연> “육망 절제해야 기후위기 해결” 세계 환경의 날 종교계 목소리 / 뉴스펄크 / 2021.06.05

<http://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14>

박현동 아빠스(대수도원장)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은 "그 누구도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 플라스틱 사용 자제, 육식에서 채식 위주로 전환,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절제와 검소를 미덕으로 삼는 사회로 전환 등 각계 실천을 제안했다.

불교계와 국내외 천주교회는 이전부터 기후행동을 이어 왔다.

천주교는 2019년 9월 교황청 과학원이 전 세계 거대 석유회사와 대형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초청해 '에너지 전환과 공동의 집을 위한 보살핌'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당시 교황은 석유회사 대표에게 "지구를 구하려면 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탄소 가격제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가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교계의 경우 조계종은 채식 권장과 빈그릇 운동, 관음종은 기후위기비상선언 참여 등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 전파와 해결 방안 강구에 목소리를 높여 왔다.

<문정현> / (지금은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답하는 다섯가지 방법 / 아이뉴스24 / 2021.04.30

<http://www.inews24.com/view/1363105>

NOAA,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바다 온도 까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최근 '5가지 방법을 통해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NOAA 소속 과학자들은 이를 오랫동안 추적해 오고 있다. 기후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제적 피해 등을 규명하고 있다.

◆‘킬링 커브’...이산화탄소 농도

◆바다 온도 파악한다

◆기후변화와 허리케인 연관성 찾다

◆오대호(Great Lakes) 살펴본다

◆기후변화에 따른 비상 사태 대비한다

<길금정> 기후위기, 필요한 모든것을 해야 할 때 / 한국자원봉사문화 / 2021.6.8.

https://blog.naver.com/v_culture/222389852704

-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삶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한다.
- 2.화석에너지에 기반을 둔 사회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꾸자.
- 3.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

(예 : 에너지협동조합만들기, 에너지카페만들기, 무포장가게만들기 등)

<고현희>

[지구를 위한 행동] 시장에 등장한 이노슈머(innosumer)! 기업을 바꾸다 - 라이프인 (lifein.news)/2021.07.19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754>

정치적, 사회적 신념을 드러내는 미닝아웃(Meaning Out) 소비에 적극적인 MZ세대가 소비의 주축으로 이노슈머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비견, 플라스틱프리, 자원순환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자 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기업은 ESG 경영(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에 힘을 싣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이노슈머의 활동 요약 >

- 화장품 기업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를 선언, 화장품 리필 스테이션 운영
- CJ제일제당: 스팸 뚜껑 반납하기 운동,통조림 햄 뚜껑 없애기
- 매일유업: 빨대 어택
- 아이쿱생협:수미김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 기쁜물 종이팩 용기 사용
- 롯데, 해태제과, 농심: 플라스틱용기 없애거나 종이로 교체
- 롯데칠성음료:무라벨 생수 출시(매출 500% 증가)
- 파타고니아: '이 자켓을 사지마라' 캠페인
- 자동차:전기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생태 복구 숲 조성

<이진경>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를 줄이는 방법 - 1부 / 환경부 블로그 / 2021.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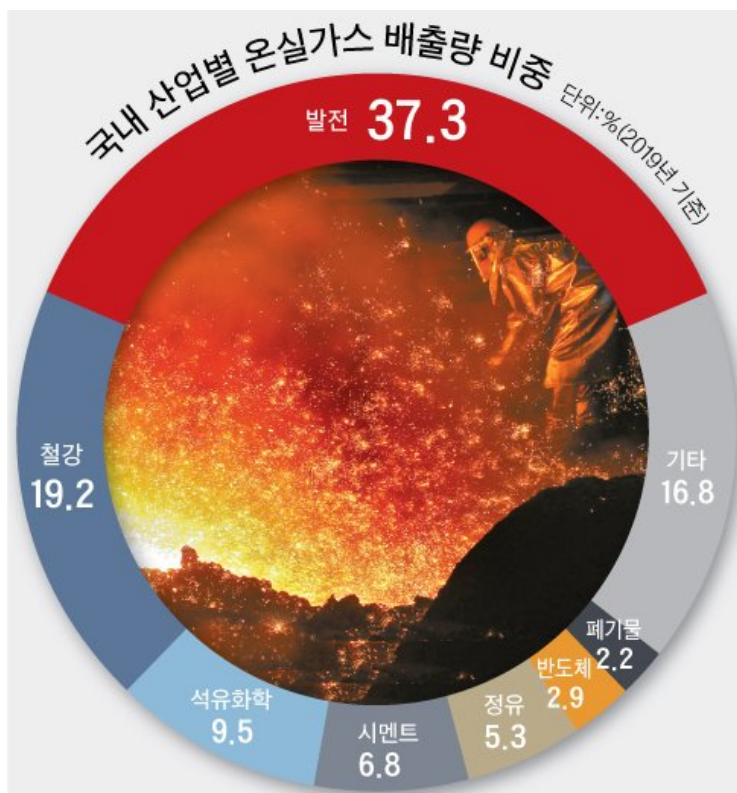
<https://blog.naver.com/mesns/222320666068>

국제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인 IPCC를 설립

제48차 IPCC 총회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 - 전세계적인 합의와 노력 필요

용어해설

- 탄소 중립 :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



출처 : <https://news.join.com/article/24063842>

-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이란 기후변화 및 인간에 의한 도시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자연 기반으로 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말한다.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704>

<조순심> 친환경 디자인의 유형별 연구-포스텍 팬데믹 시대의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오상은, 김민 - 조형미디어학 24(1), 182-190, 2021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865454>